

도교육청 출장 '증빙 실종'...의회 감사 촉구

이수진 도의원 "권한대행 일행 밀라노 출장 의혹 감사해야" 인원 불일치·외부인 포함 정황 예산 쪼개기·중복 수수료 의혹



유정기 권한대행

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2026년 지출결의서는 여행사가 제출한 견적서와 금액 및 항목 구성이 일치해 동일한 성격의 지출로 보인다. 해당 견적서에는 가이드 비용과 차량비(드라이버 및 차량비 일체), 여행사 수수료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수진 의원은 "항공·숙박·입장료 등은 2025년 예산으로, 현지 수행 인력 관련 비용은 2026년 예산으로 나뉘어 집행된 점에 대해서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이수진 의원은 티켓 관련 자료 제출 문제도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핵심 증빙인 티켓 사본이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았다"라며

"통역 인력은 인적사항(이름) 제공이 가능하다는 회신만 있었을 뿐 실제 확인 자료는 현재 제출되지 않았고, 드라이빙 가이드는 당사자 미동의를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어 실 사용자 확인을 위한 기본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수진 의원은 "결국 실제 관람자가 누구였는지, 예산이 누구에게 어떻게 집행됐는지에 대한 최종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은 유정기 전북교육청 권한대행 일행의 밀라노 동계올림픽 출장과 관련, 도 감사위원회 차원의 감사를 요구했다.

이수진 의원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뿐 아니라 공연 등 실제 관람자 확인을 위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출장 계획과 예산 집행 전반의 적법성을 독립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밝혔다. 이어 "절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만 제대로 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서 도정질문에서 출장자 5명 대비 개막식·경기·공연 관람이 7명 기준으로 이뤄진 점과 공식 일정에 없는 클래식 공연 관람 등을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도정질문 후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개막식·경기·공연 관람이 모두 7명 기준으로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통역 및 드라이빙 가이드 등 공무원이 아닌 외부 인력이 포함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이수진 의원은 2025년과 2026년으로 나뉘어 집행된 지출결의서를 검토한 결과, "각 지출결의서마다 여행사 수수료가 중복 반영된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하나의 출장 비용이 나뉘어 집행되는 과정에서 여행사 수수료가 중복 반영됐다면, 그 경위와 적정



군산조선소 '앵커' 25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관영 지사가 전북 조선산업 육성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전북도 '스마트 조선' 재도약 군산조선소 '새 닻' 시동

군산축으로 스마트 조선산업 육성 AI·친환경·MRO 융합 생태계 구축 2028년 완성선 건조 체계 전환 목표

전북도가 인공지능과 친환경 기술을 앞세운 군산조선소를 앵커삼아 국내 조선산업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미래 해양모빌리티를 선도하는 K-스마트 조선 핵심기지, 전북'을 비전으로 하는 전북 스마트 조선산업 육성 계획을 피력했다.

4대 전략·13개 핵심 추진과제를 통해 군산조선소를 단순 선박 건조 거점에서 벗어나 AI·친환경·MRO가 융합된 복합 스마트 산업 생태계로 도약시키겠다는 것.

핵심은 AI 기반 디지털 전환이다. 수작업에 의존해 온 전통 공정을 데이터로 전환하고, AI가 최적의 생산 경로를 도출하는 인공지능형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252억 원 규모의 '해양 모빌리티 AI 혁신허브' 조성사업이 산업부 공모에 선정돼 제조 AI 오픈플랫폼과 가상공장 플랫폼이 구축 중이며, 202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스마트 조선 메가특구' 지정을 정부에 건의해 규제 완화와 실증 특례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친환경·스마트선박 분야에서는 2022년 선정된 170억 원 규모의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실증 플랫폼'이 올해 완공돼 수소·암모니아 등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성능검증이 가능해진다. 군산조선소·완주 수소클러스터·새만금 수소 생산기지를 연계한 친환경 선박 생태계 구축도 추진된다. 2023년 선정된 214억 원 규모의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테스트베드'는 내년까지 완료 예정이다.

특수목적선 MRO 생태계 조성은 한미 조선협력 확대라는 국가 전략과 맞닿아 있다. 합정·관공선 전문 MRO 특화단지 인프라를 갖추고, 무기체계·통신체

그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점검회의 산하에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해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비상경제본부와 호흡을 맞춰 중동 전쟁에 따른 국내외 상황

계 등 합정 정비 전문가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HJ중공업은 올해 1월 국내 중형조선소 최초로 미 해군과 합정정비협약(MSRA)을 체결하면서 군산조선소를 글로벌 MRO 거점으로 키울 현실적 기반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인재 육성도 산업 지속가능성의 핵심 축으로 삼았다. 융점·도장·배관 등 현장 기능인력은 산업부·KOMERI 등과 협력해 기업 수요 맞춤형으로 양성하고, 전북대 글로벌대학 사업 및 지역 우수한 교육 기관들과 연계해 공정자동화·스마트트라이드 데이터관리 분야의 AX·DX 연구인력도 체계적으로 키워나간다.

이번 계획의 출발점은 군산조선소 양수도 MOA(양해각서) 체결이다.

9년 간 가동이 멈췄던 군산조선소는 예코프라임마린퍼시픽을 새 운영 주체로 맞이했으며, 현재 블록 생산 위주의 공정을 단계적으로 완성선 건조 체계로 전환해 2028년에는 완성선이 군산항을 출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이 재가동을 단순한 조선소 회생이 아니라 전북 조선산업 전체를 미래영으로 전환하는 기폭제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완성선 건조 조선소로의 전환은 우선적으로 공정·동선 재 정비와 스마트 조선소 인프라(통신망·AI·디지털트윈) 구축을 추진하고, 핵심인재를 지속 양성하면서 2028년 완성선 출항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위해 미 해군 합정 MRO 사업과 중형 컨테이너 등 상선 신조 역량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인수기업의 투자 이행 상황, 일자리 창출, 신조 조선소 전환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전북은 군산조선소와 새만금, AI 및 친환경 실증 인프라를 연계해 미래형 조선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군산조선소를 중심으로 스마트 조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을 보다 엄중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비상경제상황실 아래에는 물가·에너지·금융·민생 등 5개 대응반 5개 실무운영반이 운영된다. /서울=김영목기자

도, 여성폭력 예방 총력...대학가 캠페인 확대

전주대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대학가 중심 선제적 예방 활동 디지털 성범죄 대응·교육 병행 "사각지대 없는 대응체계 구축"

이번 캠페인은 전북여성안전지역연대사업의 일환으로 신학기 초기 대학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성폭력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이번 캠페인을 기점으로 여성폭력 예방 활동을 연중 확대 추진하고, 도민 인식 개선 및 예방 기반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이동형 홍보'와 '참여형 캠페인' 병행(디지털 셰이프가드 사업) ▲ 상

담소 미설치 지역 대상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실시 ▲ 도내 4개 청소년성문화센터(전주·군산·익산·정읍)를 통한 체험형 교육 등이 추진된다.

이미숙 전북자치도 여성가족과장은 "신학기를 맞아 대학가를 시작으로 여성폭력 예방분위기를 확산해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예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중동발 경제위기 대응靑, 추경 편성 착수

추경안 31일 국무회의서 의결

청와대는 25일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와 관련, "오는 31일 정기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의결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재정 당국을 중심으로 실무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확정되는 대로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

역사문화도시 익산

왕궁리 5층석탑 사리장엄

1966년 7월 26일 국보 지정

미륵사지 사리장엄

2022년 12월 27일 국보 지정

미륵사지 석탑

1962년 12월 20일 국보 지정

왕궁리 오층석탑

1997년 01월 01일 국보 지정

道 국가예산 11조 시대 '승부수' 선제 공세 가동

507건·6,927억 신규사업 발굴 성과 산업·농생명·SOC 등 전방위 추진 5월까지 부처 반영 '골든타임' 총력 도·시군·정치권 원팀 공조 강화

전북도는 25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7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3차 보고회를 열고 내년도 국가예산 11조원 시대를 열기 위한 본격적인 선제적 공세 전략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정부의 의무지출 비중 상승과 민생지원 수요가 급증되고 있고, 특히, 통합지자체 대상 재정 인센티브 집중 등 우리 도의 국비 확보 입지가 위축될 수 있는 엄중한 대외여건을 공유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도는 작년 9월부터 전북연구원 및 14개 시군과 함께 7개월 동안 총507건, 6,927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발굴했다.

분야별로는 ▲전북 대도약·대전환을 위한 산업·경제분야(농업 AI로봇 펌팩토리 구축사업, 피지컬 AI기반 메가노 바이오소재 자율협업 제조 플랫폼 구축, 대용량 수전해 자동차 평가센터 구

축사업 등) ▲농생명 산업수도 전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농생명분야(푸드테크 대체식품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동물헬스케어 바이오뱅크 구축 등) ▲도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문화·체육·관광 분야(익산 고도역사도시 조성사업, 고창 전지훈련 특화 시설 설치사업 등) ▲전북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새만금 분야(새만금호 방조제 수문증설 및 조력발전 사업, 새만금항 신항 접안시설 및 배후부지 재정전환)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한 SOC분야(백제대로 간선급행 버스체계(BRT) 구축사업,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전라선 고속화 등) ▲안전하고 든든한 전북실현을 위한 환경·안전·복지 분야(익산 왕궁 자연환경 복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준보훈병원 지정,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 등)에 대한 발굴이 이뤄졌다.

도는 향후 타운홀 미팅 후속 사업과 현대차 투자 연계 사업 등을 보완하여 국가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앙부처 예산안 편성의 골든타임인 5월까지 우리 도 사업의 국정과제 연계 논리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사진=전북도>

부처안 반영률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특히, 부처가 예산 한도 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할 경우에 대비해, 전북도의 사업이 국가 전체의 민생안전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필수사업'임을 입증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100대 중점확보 대상사업 위주로 중앙부처 사전설명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주부터 국가예산 현장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예산 확보활동 일일보고' 체계를 가동하며 부처예산안 반영을 위한 활동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획예산처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적사항에 대

해 즉각적인 '대체논리'를 제공하는 밀착 대응에 나선다.

이 밖에도, 원내대표와 장관, 최고위원을 배출하며 강화된 지역정치권의 위상을 적극 활용하여 정부안 편성 단계에서부터 전북자치도의 핵심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설득 작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노홍석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도·시군·정치권-경제계가 하나로 뭉친 원팀(One-Team) 공조를 통해 국가예산 11조원 시대를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전북개발공사, ESG 경영 강화 '청사진'

친환경·투명경영 35개 과제 태양광·수소 등 사업 확대

전북개발공사(사장 김대근)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2026년 ESG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전 분야에 걸쳐 총 9개 전략과제와 35개 세부과제로 구성됐으며, 공사의 핵심 사업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ESG경영 추진을 중점으로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먼저 환경(E) 분야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 확대와 녹색건축 기반 조성을 중점 추진한다.

공사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부지 내 1,231kW 규모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건물 옥상에 6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해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 지역 100MW 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과 군산시 수소충전소 구축을 통해 친환경 에

너지 인프라를 지속 확충할 방침이다.

공공주택 6개 단지에 제로에너지 및 녹색건축 인증을 추진해 친환경 건설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사회(S) 분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거복지 강화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원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참여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을 통해 민간 투자 유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지배구조(G) 분야에서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체계 확립에 주력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라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규범준수 경영시스템(ISO 37301)과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 37001)을 고도화하여 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ESG 경영성과를 홈페이지 및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

전북자치도, 조선산업 대전환 선언...AI·친환경으로 판 바꾼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혁신 '기폭제' AI기반 스마트 조선 전환 추진 친환경 연료·MRO산업 동시 육성 산학연 연계 인재양성체계 구축

세계 조선산업이 친환경·디지털 대전환의 급변속에 놓인 지금, 전북도가 탄력적 선제 대응을 펼친다.

9년여의 긴 침묵을 깬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기폭제 삼아, 도는 AI·친환경·MRO·인재를 아우르는 이번 계획을 통해 단순한 조선소 부활이 아닌 전북 조선 생태계 전체의 미래형 대전환을 선언했다. <편집자 주>

▲ 국내외 조선산업 동향과 전북의 과제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로 LNG·암모니아·수소 추진 선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전 세계 선대의 약 42%가 2037년까지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현실이 되고 있다. 특히 암모니

아 추진선 발주는 2030년까지 매년 약 20%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조선업은 LNG 운반선 시장에서 이미 86.6%의 압도적 점유율로 세계 1위를 수성하고 있다.

한미 MASGA 프로젝트로 열린 연 20조 원 규모의 미 해군 합성 MRO 시장은 신조 중심이던 조선산업의 수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 국내 조선 빅 3의 도크 가동률은 이미 100%를 초과해 2028년까지 수주 물량이 확보된 상황이며 2025년 국내 조선 수출은 318억 달러로 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올해 AI·디지털 조선소 예산을 전년 대비 42.3% 늘리고,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 추진 기술과 자율운항선박 개발에 3,200억 원을 집중 투입하며 'AI 융합 스마트 조선소 구축'을 국정과제로 명문화했다. 전북의 스마트 조선 계획은 바로 이 세 흐름을 지역에서 먼저 실행하겠다는 선제적 응답이다.

▲ AI·친환경 기반 스마트 조선 생태계 구축

전북 조선 육성 계획의 핵심은 군산조선소 재가동에서 멈추지 않고 산업 생태계 전체를 동시에 설계했다는 점이다.

도는 1조 원 규모의 피지컬AI 실증기반과 연계해 수작업 중심의 전통 공정을 데이터로 전환하고, AI가 최적 생산 경로를 도출하는 인공지능형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지난해 8월 산업부 공모에 선정된 252억 원 규모의 '해양 모빌리티 AI 혁신허브'는 중소조선사·기자재업체가 AI를 직접 실험하고 건조공정의 오류를 사전 검증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2028년까지 구축을 완료한다.

선도기업 중심의 스마트 조선 메가특구 지정까지 더하면 군산조선소는 전북 조선 혁신 클러스터의 구심점이 된다.

친환경 분야에서는 올해 완공 예정인 170억 원 규모의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실증플랫폼과 내년 완공되는 214억 원 규모의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테스트베드를 통해 수소·암모니아 추진 시스템 검증과 기관실 자율화 기술 개

발을 집중 지원한다. 군산조선소·완주수소클러스터·새만금 수소 생산기지를 연계하면 연료 공급부터 건조·실증까지 아우르는 친환경 선박 생태계가 완성된다.

▲ MRO 특화단지·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지속가능성 확보

HJ중공업의 미 해군 합성정비협약(MSRA) 체결을 발판으로 도는 군산조선소를 거점으로 한 특수목적선 MRO 특화단지 조성에 나선다.

선박 육상 이송 시스템·보안 실내 작업실·친환경기술 시험연구센터 등 전문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합성 무기체계·통신체계 정비 전문가 양성을 위한 특화교육도 산학 연계로 추진한다.

해군·해경과의 협력을 통해 MRO 특화단지가 국가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조속히 구성할 계획이다. 신조와 MRO를 양 축으로 경기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복합 조선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인재 육성도 핵심 전략이다. 군산대·전북대·군장대·호원대·전북기계공

고·군산기계공고 등 지역 교육기관과의 산학 연계를 통해 용접·도장 등 현장 수요 맞춤형 기술 인력부터 공장 자동화·데이터 관리 AI 전문 인력까지 집중 양성한다. 조선업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전북이 키운 인재가 전북 조선산업으로 직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도민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육성 계획의 궁극적 목표다.

▲ 전북의 강점과 향후 추진 방향

전북이 이 계획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실제 있는 기반이다.

새만금의 산업부지·항만·철도·전력 인프라, 1조 원 규모 협업지능 피지컬 AI 전략사업, 출연(연) 11개 기관과 관련 대학 10개교의 산학연 협력망이 군산조선소를 구심점으로 결집할 때, 전북의 스마트 조선 계획은 설계도에서 현장으로 내려온다.

도는 추후 국가 사업을 발굴하고 산업부 정책 건의와 하반기 스마트조선 메가특구 지정 전략 수립의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장정철 기자

박주민·정원오·전현희 민주서울시장 후보 경선

당원 50% 여론 50% 비중으로 과반 없으면 결선

더불어민주당 '6.3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박주민·정원오·전현희 후보가 확정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장 예비경선 결과, 박주민·정원오·전현희후보가 경선 후보로 확정됐으며 김형남·김영배 후보가 탈락했다.

민주당은 각 후보별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같은 예비경선 결과에 따라 다음달 7~9일까지 당원투표와 여론조사 방법으로 본 경선을 실시할 예정이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는 17~19일까지 상위 1~2위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김영목기자

JBT 광고 문의 063-282-9601 전북타임스 http://www.jeonbuktimes.co.kr

농협중앙회남원시지부 김종주 조합장 / 남원농협 박기열 조합장 / 춘향골농협 김영규 조합장 / 운봉농협 오용담 조합장 / 지리산농협 정대환 조합장 / 남원 원협 김용현 조합장 / 남원 축협 한경석 조합장 / 전북지리산낙협 김재욱 조합장

전주 만성중 튀김 로봇 “세척 노동 가중”에 사용 중단

2024년 도내 최초 도입 후 지난해 가동 중단... “업무 시간 늘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실에 시범 도입한 ‘튀김 로봇’이 가동을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주 만성중학교에 시범 도입한 해당 기기는 지난해 2024년 9월 관련 업체로부터 기증 받아 도내 최초로 설치됐으며, 도입 당시 서거석 교육감이 시연회에 직접 참석한 바 있다.

25일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전주 만성중학교에 시범 도입한 튀김 로봇이 ‘업무 증가’와 ‘급식 질 저하’ 등의 이유로 지난해부터 사용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만성중 관계자는 “기계 가동을 멈춘 결정적 원인은 조리 속도 저하와 세척 노동의 가중”이라며 “로봇 자체가 한 번에 많은 양을 수용할 수 없어 조리 속도가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것보다 느리다”고 말했다. 이어 “기계가 튀김 조리를 일정 부분 대신해 주더라도, 조리가 끝난 후 기름 때가 잔뜩 낀 로봇 팔과 미세한 부품들이 일일이 분해해 수작업으로 씻어야

한다”며 “청소와 관리에 들어가는 수고가 일반 튀김술보다 커서 조리원들도 수작업을 더 선호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학생 건강을 위한 급식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됐다. 만성중 영양교사는 “현재 사용 중인 로봇 모델은 완제품 위주로만 조리가 가능하고 수제 튀김은 불가능하게 설계돼 있다”며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수제 튀김을 많이 제공해야 하는 중학교 급식 환경에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도입 당시부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던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24년 도입 당시 성명을 통해 실제 기계를 다뤄야 할 조리원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됐다고 지적했다”며 “인력 예산 대비 효과와 관리 문제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현장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에 튀김 로봇 사용 빈도가 줄어든 건 사실”이라며 “초창기 모델이라 활용도가 떨어졌다. 업그레이드 된 조리 로봇 도입에 대해 타지역 학교 등의 의견을 듣고 확대·축소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사진=김제시>

김제벽천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 순회전

5월 31일까지 전시

김제시벽천미술관은 벽골제관광단지 일원에서 찾아가는 전북도립미술관 순회전 ‘산책하는 집’을 오는 5월 3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집’이 삶의 터전이 아닌 경제력을 상징하는 자산으로 변모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특히 크레인이나 인력에 의해 이동하는 ‘집’을 ‘산책’으로 표현한 설치작품을 통해, 의지와 상관없이 이

동을 강요받는 현대인의 불안정한 삶을 드러낸다. 참여작가 손민아는 베를린예술대학교에서 조형미술을 전공한 설치 기반 시각예술가로, 이번 작품을 통해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는 전북의 현실과 재산으로서 집의 역할이 강화되는 신자유주의적 경향에 질문을 던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산책하는 집 전시에 김제시민과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과 관람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 신재효판소리박물관 ‘판소리 성지 발돋움’

최신 기술 접목 체험물 확대... 리모델링 개관

전국 유일의 판소리 전문 박물관인 ‘고창신재효판소리박물관’이 전면 리모델링을 거쳐 재개관했다.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고창신재효판소리박물관(고창읍 동리로 100)에서 리모델링 개관식을 열었다. 고창판소리박물관 리모델링은 건립된

지 25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된 각종 시설물을 교체하고, 홀로그램 등 최신 IT 기술이 접목된 전시체험물이 대폭 확충됐다. 또한 지하에 있던 수장고를 2층으로 이전하고 편의시설을 개선했다. 이로써 고창군은 판소리계의 걸출한 인물과 전문박물관, 전용공연장, 연수·체험시설을 모두 갖춘 진정한 판소리 성지로 발돋움하게 됐다. 고창 신재효판소리박물관의 공간구성

은 로비(판소리의 세계속으로)→프롤로그(우리의 전통예술)→실감체험존(역사 속 판소리 연행)→주제 전시존(신재효 선생의 활동과 여성명창 진채선)→청음 체험존(판소리들어보기)→주제 전시존(명창 김소희 선생의 소리와 삶)→디지털 체험존(판소리 체험하기)→에필로그(판소리의 세계화)→기획전시실(우리의 소리꾼들)→아외중정으로 꾸며졌다. 이날 준공식에선 김일구 명창의 판소리와 퓨전 국악밴드 엑스(AUX)의 축하

공연이 있었으며, 이후 1개월간 수장고 유물 정리와 전시 콘텐츠 시운전 기간을 거쳐 일반인 관람은 4월25일부터 가능하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판소리는 재미있다. 즐겁고 해학적이고 감동도 준다”며 “앞으로 고창에서 판이 커진 대한민국 판소리를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판소리 성지’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유성동 예비후보 ‘일반고 전성시대’ 공약 발표

진로·진학 역량 강화 등 핵심 공약 제시

유성동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가 25일 일반고의 대입 경쟁력을 높이는 ‘일반고 전성시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타 후보와의 단일화 연대설을 일축하고, 교육 철학 모순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로·진학 중심 교육과정 운영,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구축, 교사 진학 지도 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대구 지역 일반고의 의대 진학 사례를 언급하며 전북 일반고의 입시 역량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해 “내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선제

적으로 충원하고, 외부 강사비를 증액해 일선 학교의 극심한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며 “시·군별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구축해 농어촌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도농 간 교육 격차를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23일 이남호 예비후보의 후원회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며 불거진 ‘단일화 및 연대설’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유 예비후보는 “이남호 예비후보가 제출한 기자회견 때 축사를 해 준 것에 대한 화답 차원의 참석”이라며 “남의 잔치에서 선의의 경쟁을 말할 수 없어 덕담을 건넨 것뿐인데, 의미가 달리 해석돼 퇴색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또한, 교사를 거쳐 시민단체 대표로 활동해 온 유 예비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대구의 의대 진학 사례 등 입시 성과를 토포물로 내세우는 것이 과거 행보



<사진=전북타임스>

와 모순된다는 현장의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유 예비후보는 “특정 학교 행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고의 역량을 전반적으로 키워 상향 평준화를 이루자는 개념”이라며 “사교육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의 질

을 공공 영역으로 끌어와 취약계층 학생들도 저렴하게 교육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고 해명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 관광일자리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 대표이사 이경윤)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는 ‘2026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일자리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4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관광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구인난 해소를 도모하고, 구직자에게는 현장 실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전문 인재 육성과 지역 인재 유출 방지 등 관광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모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관광 관련 기업이며, 선정 규모는 총 18개사 내외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참여 인턴 1인당 월 180만 원의 인건비가 최대 5개월간 지원된다. 인턴 근무 기간 동안 180만 원을 지원하고, 이후 인턴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최대 2개월간 추가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4월 6일까지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단, 투어라즈 홈페이지 가입과 한국평 가데이터를 통한 기업 등록을 사전에 완료해야 한다. /장정철 기자



<사진=전북문화관광재단>

심사는 서류 심의를 거쳐 진행되며, 4월 17일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이 도내 관광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실무형 인재 양성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도내 관광 일자리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군산시, 누구나 참여하는 선거 교통약자 이동 지원 강화

군산시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통약자 및 읍·면 지역 주민의 투표 편의 제공을 위한 교통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동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해 사전 투표일(5월 29일~5월 30일)과 선거일(6월 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특별교통 수단 2대를 무료로 운행한다.

지원 대상은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로, 거주지에서 투표소까지 왕복 이동을 지원한다.

또한 읍·면 지역 유권자의 투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임피·서수면, 회현면, 대야면, 옥구·옥서면, 성산면, 가력항을 운행 중인 행복콜버스도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11대를 투입해 평일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와 읍·면 거주 주민들이 제약을 없이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내달 3일까지 ‘정읍 맛집’ 신청 받는다

정읍시가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음식점을 발굴하고 미식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4월 3일까지 ‘2026년 정읍 맛집’ 지정 신청을 받는다.

이번 모집은 기존 일반음식점에 국한됐던 대상을 휴게음식점·제과점까지 새롭게 추가해 신청 규모를 15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해 진행한다. 신청 자격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소다. 단,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았거나 프랜차이즈 체인점(정읍 본점 제외), 최근 2년 이내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는 업소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지정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춰 정읍시 보건소 위생관리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평가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현장 평가로 나뉘어 진행되며 맛과 서비스, 위생·시설 상태, 접근성·편의성, 가성비·독창성 등을 다각적으로 심사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6월 중 시 누리집을 통해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정읍 맛집으로 최종 선정된 업소에는 공식 현판과 지정패가 수여되며 상수도 요금 30% 감면, 음식점 위생등급제 사전 컨설팅 우선 지원, 시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을 활용한 대대적인 홍보 등 다채로운 혜택이 주어진다. 세부 제출 서류와 선정 절차는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 사항은 보건소 위생관리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영농철 앞두고 주민숙원·생활환경 정비 추진

군산시가 영농철을 앞두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로 및 배수로, 저수지 정비를 통한 영농환경개선 △지역주민 생활 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 추진되는 사업은 읍면동 건의사항을 반영해 편성됐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5건, 생활환경정비사업 39건, 저수지 보수·보강사업 12건 등 총 106건, 54억 원 규모다. 주요 내용은 농경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배수로, 농로, 저수지 정비 등이다.

시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검토, 현장 조사, 측량, 설계도서 작성 등을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조사 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공사 과정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영농철을 앞두고 농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련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며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재정 신속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모아복합센터’ 건립 순항

임산·보육 한곳에서 이달 설계 중간 점검 10월 착공 목표 ‘속도’

익산시가 임산부터 출산, 양육까지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지원하는 ‘모아 복합센터’ 건립 사업의 설계 점검에 나서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오는 31일 보건소 세미나실에서 이진운 보건소장과 건축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아복합센터 설계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이용자 편의를 극대화할 설계안을 면밀히 검토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아복합센터는 엄마와 아기, 가족 모두가 한 건물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합 지원 시설’이다. 임산부 상담부터 아이 돌봄까지 모든 서비스가 한곳에 모여 있다.

신동 일원에 총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연면적 974.5㎡)로 세워질 센터는 오는 10월 착공해 2028년 2월 문을 열 계획이다. 총별로는 △1층 아픈아이 돌봄센터 △2층 키즈카페 및 부모 쉼터(휴 카페) △3층 모자보건 상담실 △4층 교육 프로그램실 등이 들어서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25일 이윤진 보건소장이 ‘모아복합센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익산시>

특히 이번 설계에는 전국 단위 선진 사례를 차용한 ‘이용자 중심 공간’ 아이디어가 대거 반영됐다.

공간 특성을 고려해 바닥 난방을 설치하고, 아픈 아이들을 위해 샤워 시설을 갖췄으며, 주차장과 놀이터를 분리해 안전성까지 세심하게 고려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은 실제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다. 익산시 출생아 수는 2023년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반등에 성공했다. 2023년 출생아 수가 909명이었던데 비해 2024년에는 973명, 지난해는 잠정 1,100명대로 늘어났다.

시는 익산만의 특화사업 예산을 5년

전보다 90% 가까이 대폭 늘리며 저출생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화사업으로 △임산부 280 건강관리 지원(산전·산후 건강관리비 40만 원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산후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등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출산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진운 익산시 보건소장은 “모아복합센터는 익산시 임산·출산 정책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임산부터 보육까지 시민 곁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상반기 내 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물김 위판금액 603억 원 달성

수출증가양호한 해양환경 영향·역대 최대 실적

군산시는 2025/2026년산 물김 위판량이 약 3만 5천 톤, 위판금액은 약 603억 원(2026년 3월 8일 기준)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물김 수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2024/2025년산

위판금액 약 460억 원(위판량 약 4만 2천 톤)을 이미 넘어선 수치로, 위판금액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특히 올해는 전년 동기 대비 위판량은 약 6천 2백 톤, 위판금액은 약 270억 원 증가하는 등 물김 생산과 판매 모두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K-푸드 열풍에 따른 김 관련 제품 수출 증가와 함께 김 생육에 적합한 해양환경이 조성되면서 황

백과 등 갯병 발생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군산시 해조류 양식 면허어장은 총 58건, 면적은 5,512ha 규모이며, 육도면 10개 어촌계 김 양식장에서 물김을 생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조류(김) 양식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더불어 해양 환경 조건이 잘 맞아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100원 버스’ 환급기간 확대

기존 매월 19~26일서 5년으로… 편의성 ↑

익산시가 ‘100원 버스’ 환급기간을 대폭 확대해 이용자 불편 해소에 나섰다. 익산시는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인 ‘100원 버스’ 제도의 환급금 수령 기간을 5년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월 이용 금액에 대한 환급액을 매달 19일부터 26일까지 정해진 기간에만 지급해 왔다. 이로 인해 기간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환급 방식은 유지하면서

환급 가능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선으로 이용자들은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100원 버스는 익산시에 주소를 둔 어린이·청소년이 전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시내버스 또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이용할 경우, 실제 요금에서 1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다음 달 환급해 주는 제도다. 현재 교통카드 기준 요금은 어린이 800원, 청소년 1,300원이다.

전월 이용 횟수에 따라 어린이는 월 최대 3만 원, 청소년은 월 최대 5만 원까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타 지역 시내버스 이용 △다인승 결제 △차차 시 단말기 미태그 등은 지원 대

상에서 제외된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행복더하기’ 앱을 통해 전용 교통카드를 신청·발급 받은 뒤 앱에 등록하고 충전해 사용하면 된다. 환급액은 앱 내 쿠폰 형태로 지급돼 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익산시는 이번 개선으로 어린이·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환급 기간이 짧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 개선으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난임 시술비 소득·연령 제한 폐지

비급여 3종 지원 등 맞춤형 혜택 대폭 강화

정읍시가 올해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과 연령 제한을 없애고 출산당 최대 25회의 시술비 지원과 30만원 상당의 냉동 난자 해동비를 신설하는 등 난임 부부를 위한 맞춤형 혜택 강화에 나섰다.

정읍시 보건소는 국가형·전북형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기존에 적용되던 소득과 연령에 따른 지원 차등 기준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관내 난임 부부는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를 합쳐 출산당 총 25회의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90%와 비급여 3종 항목이 지원되며, 특히 올해부터는 비급여 지원 범위를 더욱 넓혀 냉동 난자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해동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추가로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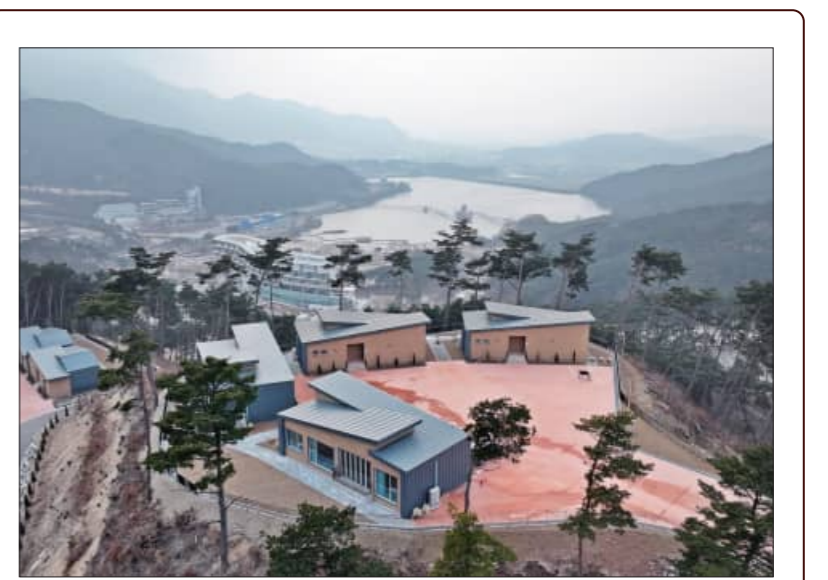
서양의학적 시술 외에 자연 임신을 선호하는 부부를 위한 맞춤형 혜택도 병행된다. 시는 양방 시술을 원치 않는 난임 부부에게 1인당 최대 180만원의 한방 난임 치료비를 지원해 선택의 폭을 넓히고 출생률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인 치료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정서적 어려움을 털어주기 위해 전북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와 적극적으로 연계해 전문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

한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해 정읍시의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건수는 총 249건을 기록했으며, 이중 44건이 실제 임신으로 이어져 18%의 성공률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7% 증가한 수치로 체계적인 지원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난임 치료는 장기간에 걸쳐 끈기 있게 노력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부부의 심리적이고 경제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난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부부들이 온전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사진=정읍시>

정읍시, 내장산자연휴양림 개장

27일부터 예약 시작

정읍시가 조성한 ‘내장산자연휴양림’이 정식 개장을 앞두고,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산림청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본격적인 사전 예약 접수에 돌입한다.

용산동 산 47번지 일원 48.8ha 규모의 시유지에 자리 잡은 내장산자연휴양림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국·도비 포함 175억 원을 투입해 완공됐다. 주요 시설로는 산림휴양관·방문자안내소 1동과 독립형 숙박 시설인 숲속의집 9동이 마련됐다. 추가 숲속의집 2동과 오토캠핑장 시설은 오는 8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숙박 구역 중 6인에서

최대 12인까지 수용 가능한 ‘숲속의집’은 실내 취사가 가능하지만 4인실로 구성된 산림휴양관 9개 객실은 취사가 제한된다.

시설 이용료는 객실 규모와 성수기·주말 여부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1만원까지 책정됐다.

시는 이용객 부담을 덜기 위해 정읍시민에게 비수기 주중(일-목) 50%, 성수기·주말 30%의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예약은 산림청 자연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인 ‘숲나들’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상세한 예약 안내는 누리집 또는 내장산자연휴양림 방문자안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합동평가 대응계획 보고회 개최

지표별 맞춤형 전략 수립

군산시가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영민 부시장 주재로 ‘2026년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평가 대비 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보고회는 2025년 추진 실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6년 평가 대응 계획을 공유하고 국·소·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정량지표 목표 달성을 위해 지

표별 매뉴얼을 철저히 분석하고, 도·담당자와의 상시 소통 체계를 활성화해 실적 누락 등의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무결점 실적 관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김영민 부시장은 “합동평가는 우리 시의 종합적인 행정 수행 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평가”라며,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문 적극적인 협력으로 목표 달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망 구축

익산시가 단순한 진료와 처방을 넘어, 시민의 생애 전 주기를 세심하게 보살피는 ‘튼튼한 건강 도우미’로 거듭나고 있다.

시는 저출산 극복부터 고령화 시대 치매 관리까지, 시민 누구나 차별 없는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건강 안전망을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펼친다. 한의원을 통해 체질 개선을 돕는 한약 복용과 침·뜸 치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평생 치아 건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영유아 구강 관리부터 불소도포, 이동 치과 버스 운영 등 올바른 치아 관리 습관 형성을 돕고 있다.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는

특별하게 진화했다. 그 중에서도 ‘모바일 헬스케어’는 스마트 워치 같은 기기를 통해 수집된 건강 데이터를 바탕으로 간호사, 영양사, 운동 전문가가 비대면으로 상담해 주는 서비스다.

치매안심센터는 건강하고 노후를 위해 기억을 지키고 일상을 돌보는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소 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우울증, 스트레스, 알코올 중독 등 고위험군에 대한 전문 상담을 진행한다.

이진운 익산시 보건소장은 “시민 누구나 소외됨 없이 따뜻한 보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재난 대비 임시주거시설·구호물자 점검

정읍시가 기후변화 등으로 잦아지는 자연재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까지 관내 임시주거시설과 재해구호물자에 대한 강도 높은 사전 점검에 돌입했다.

이번 점검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비를 통해 이재민 보호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시의 전반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집중 점검 대상은 관내 임시주거시설 27개소와 재해구호 창고 1개소 등이다.

시는 점검 기간 동안 가장 임시주거시설의 내·외부 배치 계획을 살피고 시설 내 전기·수도·난방 등 기본 설비

상태와 위생·안전 관리 실태를 꼼꼼하게 확인한다.

아울러 시설 안내 표지판 정비와 함께 응급구호세트, 담요, 생필품 등 주요 재해구호물자의 비축 현황과 유효기간을 전수 조사해 실효 대응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임시주거시설과 구호물자를 완벽하게 관리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부안군, 행안부 적극행정 평가 '우수'

독보적 행정 역량 입증...5년 연속 선정 "군민 복리 증진 집중"

부안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6년(2025년 실적)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2021년 하반기 성과 점검부터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군은 전국 243개 지방정부(광역시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성과는 일시적인 결과가 아닌

라 지난 5년간 꾸준히 이어온 행정 혁신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군은 2022년(21년 하반기 성과 점검) 선정을 시작으로 2023년(2022년 실적), 2024년(2023년 실적), 2025년(2024년 실적)에 이어 올해 2026년(2025년 실적) 평가까지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우수기관 타이틀을 지켜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에는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 점검에서도 잇따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행정을 증명해 왔다.

이번 평가는 적극행정 제도 개선, 이행 성과(우수사례), 체감도 등 5대 항목 18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단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진행됐다.

군은 공직자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정책보조관 제도를 운영하고 실효성 있는 성과 보상 체계를 가동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군은 5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의 적극행정 역량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감사나 소송의 부담 없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행정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화영 부안군 부군수는 "5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은 군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전 공직자가 능동적으로 움직인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변화가 군민에게 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리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부안=은봉기 기자

김제시,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시행

주거 환경 개선 도움

김제시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친화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다.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가구 및 전세사가 피해자다. 사업비는 1억6천8백만원을 들여 약 28가구를 선정해 세대 당 600만원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 지붕, 화장실(정화조 공사)의 경우 최대 7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주요 목적은 단열재 보강, 창호 교체, 도배, 장판 시공 등 에너지 효율을 높임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조성하고, 외부 환경 정비를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달 안으로 대상자 선정 및 위수탁 업체 공개모집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 오는 4월 초부터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더 많은 저소득층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은봉기 기자



김제시, 어르신 섬김 으뜸마을...마을공동체 문화 확산 기대

김제시는 25일 2026년 어르신 섬김 으뜸마을로 선정된 5개 마을 가운데 금산면 명산마을과 신평동 동도마을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진 어르신 공경 실천 사례와 마을의 공동체 분위기를 살펴보고, 일상 속 배려와 존중이 지역사회에 주는 의미를 함께 나눴다. 특히, 주민들이 어르신을 중심에 두고 서로를 살피는 마을의 모습은 공동체의 소중한 가치가 생활 속에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어르신을 공경하고 이웃이 함께하는 마을의 따뜻한 실천이 지역사회를 더욱 든든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어르신을 존중하는 공동체 문화가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군, 농촌공간 정비사업 선정

대산면 사거지구 폐축사·폐교 등 철거

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 농촌공간 정비사업(정비형)' 공모에 선정돼 약 4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제도의 일환이다. 농촌의 유해시설을 정비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대산면 사거지구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4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폐축사 14동 △대성고등학교(2004년도 폐교) 13동 △폐건물 8동 등 총 4개소 35개동의 폐건축물 정비하게 된다. 타 사업 단계별 연계 투자를 통해 주민들을 위한 생활 서비스 공급 시설이나 정주 기능의 공간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대산면 사거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정비형) 종합계획도 <사진=고창군>

면 소재지의 미관을 해치고 붕괴 우려로 안정성에 문제가 있었던 유해한 폐축사와 폐교시설(대성고등학교) 등 폐건축물을 철거함으로써 대산면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폐축사와

22년전 폐교된 대성고등학교의 정비 등 그동안 대산면민들의 오랜 숙제를 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농촌공간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와 지역 모든 농촌공간이 살기, 일터, 쉼터로서의 기능과 매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연안습지보호관리위 열려

해양보호구역 관리강화

고창군이 지난 24일 람사르고창갯벌센터에서 2026년 제1차 고창군 연안습지보호관리위원회를 열고, 고창갯벌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해양수산 및 환경 분야 전문가와 지역 단체 관계자 등 10여 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2026년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2027년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예산 편성 계획을 심의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세계유산 관리사업과 기타 주요 안전들을 공유하며 고창갯벌의 효율적인 관리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고창군은 '한국의 갯벌 - 고창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5

주년을 맞아 고창갯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갯벌 비버드레이스', '고창갯벌 맨발걷기대회', '고창갯벌 탐조박람회' 등 고창갯벌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다양한 홍보사업과 '고창갯벌 세계유산학교', '고창갯벌 키퍼스' 등 전 연령층 대상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윤욱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올해는 고창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5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브랜드화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체계적인 보전은 물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가족 뮤지컬 '돼지책' 내달 18일 공연

부안군은 가족 뮤지컬 '돼지책'을 오는 4월 18일 오후 3시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공연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한국 엄마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림책 작가 앤서니브라운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가족극으로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공연되는 작품이다.

제목부터 눈길을 끄는 이 작품은 엄마와 아내의 위치와 존재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다소 진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름 없이, 얼굴 없이 살아가는 여성의 소중함을 깨달아 가는 아빠와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며 무대 곳곳에 배치된 다양한 불거리와 함께 가족의 의미와 행복한 가정의 필요조건, 그리고 함께하는 삶의 즐거움을 따뜻하게 전달한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지역 주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공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안 예술회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은봉기 기자

김제시, 검산동~하동 연결도로 개설 추진

통행 여건 개선 및 물류 효율성 향상... 편의 증진

김제시가 지역 인프라 구축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정효군 도시건설국장은 지난 24일 검산오거리에서 서흥농공단지를 연결하는 도로 개설사업 추진 현황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각별하게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검산동~하동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지역 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장 2km, 폭 11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3년 12월 1차분 공사 준공에 이어 올해는 2차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현재 사업대상지 내 일부 구간에서 미매입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이며, 토지 소유자와의 지속적인 설

득과 토지수용 재결 등 행정절차를 병행해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 국장은 "해당 도로가 개설되면 서흥농공단지, 스카힐스CC 등 인근 지역은 물론, 지평선산업단지 및 민간육종연구단지 등 북측 생활권의 주요 시설과 연계가 가능해져 물류 접근성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군-(주)푸드리스트 '상생협약' 체결

인재채용·농산물활용 마케팅 등 협력

고창군이 25일 군청에서 고인돌휴게소 운영사인 ㈜푸드리스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인재 채용과 농특산물 마케팅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창군수와 하동열 ㈜푸드리스트 상품BU장 등이 참석했다.

사조그룹 계열사인 ㈜푸드리스트는 2025년 서해안고속도로 고인돌휴게소의 운영위탁자로 선정돼 최근 리뉴얼 공정을 마무리하면서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협약에선 고창고인돌휴게소를 중심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재 양성에 협력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창군에 거주하는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을 우선 채용해 지역 내 고용 확대에 나선다. 휴게소 내 팝업 공간을 통해 지역 스타트업 및 청년 창업 제품 전시·판매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양 기관은 지역 축제와 연계한 체험 부스 운영 및 공동 홍보를 통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복지시설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재료 지원 및 나눔 캠페인 등 사회공헌 활동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이를 활용한

매뉴 개발과 상품화를 통해 고창의 맛과 가치를 전국에 알릴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창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푸드리스트가 보유한 전국적인 유통 인프라와 연계해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기반을 마련한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전반의 균형 발전과 지역-기업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사진=고창군>

고창군, 공주시·정읍시와 고향사랑 상호 기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과장 양미옥)와 공주시청 문화예술과, 정읍시청 민원지적과가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에 동참하며 지역 간 상생협력을 강화했다.

지난 24일 고창군에 따르면 종합민원과 직원 20명이 참여해 총 200만 원을 공주시·정읍시에 기부했다. 이에 공주시청 문화예술과 직원들과 정읍시청 민원지적과 직원들도 지역 발전과 상생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고창군에 상호 기부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담례품을 제공받는 제도다. 양미옥 고창군 종합민원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역 상생 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수중전환 방식 본격 추진

김제시는 청정 산림을 보호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국도 21호선(전군선) 양측 가시권 내 소나무를 대상으로 오는 4-5월 중 수중전환(모두베기) 방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6년 최초 발생 이후 감염목 및 고사목 제거, 예방 나무주사, 수중 전환 방제, 항공예찰,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등 다각적인 대응을 지속해 왔다.

그 결과 발생 규모를 억제하며 청정 산림 유지를 위한 기반을 다져왔으며, 감염목 확산 차단과 건전한 목재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관리 체계도 강화해 왔다. 특히 군산, 전주 등 인접 지역과 연결되는 주요 확산 경로인 국도 21호선(전군선) 일원 공덕·용지·백구면 등에 방제명령을 내리고 방제를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최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김제시 전역으로 급속도로 확산되는 추세다.

또한 감염목을 개별 처리하는 단독방제 방식으로는 방제에 한계가 있으며, 산주의 모두베기 등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방제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방제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국도 21호선(전군선) 양측 소나무류 약 27ha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4-5월 직접 모두베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강한 산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민과 산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남원, 매립장 '자원화' 전환...40년 기반 확보

대산매립장 순환이용 정비 착수 23억 투입 매립장 재활용 전환 신규 부지 없이 40년 매립 가능

남원시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자원순환 체계 강화를 위해 '대산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매립장에 생활폐기물을 단순 매립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미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선별해 재활용 자원을 회수하고 매립 공간을 재확보하는 '순환이용형 매립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매립장은 폐기물의 최종 처분 시설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 기조에 따라 '잡재적 자원 저장소'로서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정책 흐름에 발맞춰 대산매립장을 단순 매립시설이 아닌 자원 회수 및 재이용의 거점시설로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의 총 시설면적은 3만 6천㎡, 굴착용량은 33만5천㎡에 달한다. 향후 2년간 국비 117억 원, 도비 35억 원, 시비 81억 원 등 총 23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약 40년간 폐기물 매립이 가능한 용량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신규 매립장을 조성하지 않고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토지 이용 부담을 줄이고, 환경적·경제적 비용을 동시에 절감한다.

시는 이번 정비 과정에서 금속류와 가연성 물질 등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회수할 방침이다. 선별된 가연성 물질은 향후 설치될 소각시설에서 처리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 처분까지 이어지는 순환 경제 체계의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악취와 유해가스를 차단하기 위해 '사전 악취 안정화' 공법을 적용하고, '선별동'을 설치하는 등 인근 마을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2030년부터 시행되는 '생활쓰레기 직매입 금지 제도' 대비 소각시설 설치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도 병행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에스에스알과 손잡고 지역활력 모색

위더파크 할인 등 혜택 협약 청년 인턴십·일자리 창출 협력

순창군과 (유)에스에스알(대표 이사 김수영)은 지난 24일 지역상생발전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 등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주민 복지 향상과 청년 일자리 창출,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유)에스에스알이 운영하는 선웨이어드벤처 위더파크는 순창군민을 대상으로 시설 이용 시 비수기 20%, 성수기 30%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청년을 위한 현장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해 취업 기회를 넓히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농산물 구매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축제 프로그램 지원, 지역소멸 대응 공동 연구 추진, 중앙정부 공모 사업 공동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수영 (유)에스에스알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의미 있는 계기"라며 "선웨이어드벤처 위더파크 운영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순창군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 군민의 날 준비 '착각'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순창군은 지난 24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제64회 순창군민의 날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최영일 군수를 비롯해 관계 부서장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부서별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협조 사항을 공유하는 등 행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 현황을 면밀히 검토했다.

보고회에서는 기념식과 군민화합 음악회, 축동행렬, 육전출다리기, 골목페스티벌, 먹거리 부스 운영 등 주요 프로그램 준비 상황과 함께 교통·안전관리, 의료지원, 환경정비, 주차관리 등 분야별 지원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행사 당일 많은 군민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관리와 교통대책,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또한 각 부서는 행사장 시설물 안전점검, 교통 통제 계획, 의료지원 인력 배치, 환경정비 추진 등 세부 실행계획을 공유하며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강화했다.

한편 제64회 순창군민의 날 행사는 오는 4월 17일 순창읍 중앙로 일원에서 기념식과 문화행사, 전통놀이 체험, 군민화합 음악회, 불꽃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햇빛소득' 기본사회 비전 선포

500명 참석 정책 모델 추진 선언 태양광 기반 소득 공유체계 구축

완주군이 태양광을 중심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새로운 기본사회 정책 모델 구축을 본격화했다.

25일 완주군은 군청 어울림광장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햇빛소득 기본사회'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 소속 기본사회 위원회 강남훈 부위원장(장관급)을 비롯해 김관영 도지사, 황병선 민주당 최고위원, 송기현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 등이 축사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완주군 기본사회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격려하며 힘을 실었다.

행사는 기본사회 분과위원 위촉식, 명예군민증 수여, 기념사 및 축사, 비전 및 전략 발표, 비전 선포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으며, 정책 추진 기반을 다지고 대외적으로 실행 의지를 천명하는



<사진=완주군>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강남훈 부위원장, 정근승 사단법인 기본사회위원회 부이사장 등 4명의 전문가를 완주군 조정조정위원회 기본사회 분과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완주군 기본사회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군은 그동안 태양광을 활용한 소득모델 구체화를 위해 연구 용역과 주민설명회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지난 2월에는 (사)기본사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기본사회 정책 고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햇빛소득은 재생에너지로 발생하는 이익을 군민과 함께 나누는 기본사회의 대표 실천 모델"이라며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춰 완주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체제 가동

TF 구성 위험지역 점검·발굴 취약계층 대비 지원체계 정비

남원시가 여름철 태풍과 호우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본격적인 사전 대비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5월 14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5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대책기간 전까지 완벽한 대응 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근거해 인명 피해 제로화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남원시는 안전재난과를 총괄로 13개 협업기능부서 및 읍면동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했다.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단계별 상황근무 기준을 확립하고, 재난안전통신망(PS-LTE)과 단

체대화방을 활용하여 유관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급경사지, 하천변, 저수지, 지하차도 등 위험지역을 4월까지 일제 점검한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을 추가 발굴하고 장애인·독거노인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조력자를 1:1로 매칭하는 등 주민대피 지원체계를 정비한다.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송동 세전 및 덕과 용산 배수펌프장 등 주요 시설의 시험 가동을 실시하며, 491개소의 재난예경보 시스템을 일제히 점검한다. 아울러 4월 30일까지 부족한 수방 자재를 확보하고 임시주거시설과 긴급구호물자 비축 현황을 점검하여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수습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시설공단, 해빙기 안전 환경 점검 '총력'

27일까지 전 사업장 환경정비 수영장 등 신규시설 관리 본격화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이 본격적인 봄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시설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역 사회 유관 기관과 합동 환경정비 및 해빙기 안전 점검을 25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활동에는 완주군자원봉사센터와 케이워터기술(주) 전주사업소가 함께 참여해 지역 사회 기관 간 상생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다.

점검은 27일까지 3일간 이어지며 고산자연휴양림, 공설공원묘지, 공영주차장, 마을버스 차고지, 수영장 등 공단이 운영하는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정비와 시설물 안전 점검을

병행한다.

겨울 동안 쌓인 낙엽과 쓰레기 등 각종 오염물을 제거하고,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붕괴나 균열 등 안전 취약 요인을 사전에 살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아울러 공단은 올해부터 완주국민체육센터, 삼례청소년수련관, 봉동군로자종합복지관, 이서문화체육센터 등 4개 시설 수영장의 위탁 운영이 본격화됨에 따라 신규 사업장에 대한 환경정비와 안전 관리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희수 이사장은 "모든 시설에서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공단이 운영하는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정비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영호남 유일 바이오 테스트 거점 구축

시험·임상 전주기 통합 플랫폼 바이오테스팅센터 25일 개관

남원시가 영호남 지역 유일의 '시험·검사·피부임상 통합 플랫폼인 바이오테스팅센터'를 개관했다.

남원시와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원장 이영철)은 25일, 지역 바이오 산업의 비약적 성장을 이끌 '남원바이오테스팅센터'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보건복지부,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 및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개관 기념으로 마련된 '시험·임상 서비스 할인 프로모션'은 수도권 비용

부담에 시달리던 기업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무엇보다 이번에 문을 연 남원바이오테스팅센터는 영호남 지역에서 유일한 '통합형 바이오 인프라'로, 그동안 수도권에 편중되었던 바이오·화학품 검증 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화장품의 안전성·효능 검증에 위한 시험·검사 기능과 피부임상 기능을 하나로 결합한 시설로 완성한 만큼 시는 이번 센터 구축을 통해 제품 개발부터 시험·검사, 최종 임상까지 한 곳에서 해결하는 '산업 전주기 지원체계'를 완성,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에 센터는 앞으로 단순 검사기관 넘어 '바이오 R&D 엔지니어'로 향후 기업 수요에 맞춰 △정밀 시험·검사 및 분석 △고도화된 피부임상시험 △첨단 장비 활용 지원 △기업 입주 공간 및 공동연구·기술 자문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단계별 확장 로드맵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 시험·검사 기관'으로 성장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올해 화장품 분야 지정을 시작으로 △2027년 식품 △2028년 축산물·농산물·위생용품 등으로 검증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또한, 센터 내 바이오 산업 홍보관을 조성해 산업적 시너지와 대외 홍보력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계절근로자 환영식...농번기 일손 '숨통'

라오스 근로자 40명 순차 투입 21명 입국...27일부터 농가 배치

순창군이 지난 24일 농업기술센터 2층 다목적강당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환영식을 열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 지원에 나섰다.

올해 순창군이 도입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총 40명으로, 라오스 현지 면접을 통해 선발됐다.

이 가운데 1차로 21명이 이날 입국했으며, 오는 27일부터 지역 농가에 순차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나머지 19명은 4월 중순 추가 입국해 영농 현장에 배치된다.

지난해 순창군에서는 연인원 5,61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1,665농가에 투입되며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완화



<사진=순창군>

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군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작업 참여를 위해 이동 편의와 인력 운영 체계도 함께 개선하고 있다. 근로자의 숙소와 작업장 간 이동은 신청 농가가 담

당하도록 하고, 쌍치·복흥 지역에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뒤편에 인력대기소를 운영해 농가의 인력 활용 접근성을 높였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농산물 미생물 검사 구축...안전관리 강화

생산유통 단계 분석 실시 본격

완주군이 농산물 유해 미생물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식중독균 검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생산 단계부터 로컬푸드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한다.

군은 로컬푸드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유해 미생물 분석은 생산 및 유통 단계의 생식용 엽채류와 농용용수를 대상으로 하며, 분석 항목은 대장균과 대장균군 등 식중독균 4종이다.

군은 지난해 유통단계에서 211건, 생산 단계(농산물·농업용수) 160건을 분석한 결과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완주군은 검출 유무에 따라 현장 점



검을 통해 농산물 출하 시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재배지 내 잠재적 위해 요소를 파악해 맞춤형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잔류농약 및 유해 미생물 분석부터 재배 환경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과학적인 분석과 품질관리로 지역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이돈승 '무능 행정 4년 끝내야...완주를 키울 리더십 필요'

더불어민주당 완주군수 경선에 출마한 이돈승 예비후보가 "유희태 군수의 4년 군정은 성과를 만들지 못한 채 기존 성과마저 소진한 무능한 행정"이라며 교체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25일 경선 출마 기자회견서 "완주를 지킬 후보, 완주를 성장시킬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축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전임 군수가 추진했던 50만 평 규모 계획이 19만 평으로 대폭 축소됐다"고 말했다.

단기 성과 중심 사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후보는 "3억 원을 들인 만경강 꽃동산 사업은 20여 일 만에 쓸려갔다"며 "187억 원 규모의 생태주차장 사업 역시 주민 수요와 동떨어진 채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작 삼례·봉동·이서 혁신도시 주민들은 공영주차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현장을 외면한 사업은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행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완주문화원 이전이 군민 공감 없이 추진되다 표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향후 비전으로 수소 산업과 방산 AX,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한 산업 재편을 제시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장수군, 주택화재 현장 방문 임시거처 제공 등 신속 대응

장수군은 지난 24일 주택화재 피해 주민을 찾아 위로하고 조속한 일상 회복 및 피해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지난 22일 오후 11시 30분경 장수군 천천면 소재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택이 전소되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현재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

군에서는 피해 주민을 위해 마을회관을 임시 거처로 제공하고 긴급 식량, 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긴급지원비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에 나섰다.

또한 추가적인 복구 지원 방안을 검토해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갑작스러운 화재로 실의에 잠긴 황 모씨는 “화재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장수군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 위로의 손길이 큰 위로가 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훈식 군수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며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과 지원책을 강화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제1차 반부패·청렴 회의 개최

임실군은 지난 23일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심민 임실군수 주재로 부군수, 국장, 부서장 등 5급 이상 간부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반부패·청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6년 반부패·청렴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주요 청렴시책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등 청렴 시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군은 올해 △반부패·청렴 인프라 강화 △청렴의식 제고 및 청렴문화 확산 △민·관 청렴 공감대 형성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25개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심민 임실군수는 “군민이 체감하는 청렴은 일상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비롯된다”며, “각 부서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 본격 활동 돌입

진안군은 25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2026년도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수질보전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선발된 지킴이 42명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약 6개월간 용담호 유역 전반에서 수질 보호를 위한 현장 중심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진안 용담호는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충청권 등 150만 주민들의 식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군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자율 관리 체제로 유지하며 맑은 물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다.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는 지난 2008년 처음 운영을 시작해 올해로 17년째를 맞는 사업으로, 주민 참여형 수질관리 모델로 자리 잡으며 용담호 수질 개선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왔다.

이날 발대식에는 진안군의회를 비롯한 군의원들과 용담호수질개선추진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킴이들의 출발을 축하했다. 행사는 지킴이 위촉과 함께 수질 자율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직무 안내,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며 활동 의지를 다졌다.

특히 지킴이들은 앞으로 △유입하천 수질오염 행위 감시 및 계도 △쓰레기 투기 및 방치폐기물 제거 △불법 낚시·어로행위 단속 △기후변화 무단배출 점검 △노조 예방을 위한 퇴비 관리 등 다양한 현장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건강검진사업 ‘최우수기관’

25년 의료급여 일반검진 및 국가암검진 도내 1위 달성

무주군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시한 ‘2025년 국가건강검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평가에 따르면 무주군은 주요 건강검진 지표 전반에서 높은 수검률을 기록했다. 특히 의료급여 수검권자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이 전북 도내 1위(60.11%)를 차지했으며, 국가암검진 수검률에서도 도내 1위(46.74%)를 달성했다. 영유아 건강검진(의료급여)의 경우 수검률 100%를 달성했다.

의료급여수검권자들이 검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밀착 관리한 것이 최우수기관 선정(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의 결정적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무주군은 그동안 수검 시각지대 해소와 주민들의 정기 검진 및 치료를 위해



미수검자 1:1 안내, 검진 이후 사후 관리,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등 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또한 ‘암 예방의 날’ 홍보 주간에는 지역 내 복지관과 자원센터를 방문해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하며 △국가암검진 대상자 확인 및 안내, △생활속 암 예방수칙 교육, △검진 두려움 캠페인

을 펼치는 등 주민 동참을 이끌었다.

선화 무주군보건소의료원 의료지원과장은 “국가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검진 두려움과 암 예방 홍보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 하이패스IC 연결도로 현장 점검

해빙기 안전점검 국도26호선 확장 연계 추진 교통 인프라 개선 박차

장수군은 24일 천천면 일원에서 추진 중인 장수 하이패스IC 연결도로 개설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겨울철 동결과 해빙이 반복되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지반 침하와 낙석, 구조물 균열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수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하이패스IC 설치사업의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을 방문한 최훈식 군수는 시공 및 감리 관계자로부터 공정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은 뒤, 절·성토 사면과 배수시설, 통로암거 등 주요 구조물을 중심으로 해빙기 취약구간을 집중 점검하며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장수 하이패스IC 연결도로는 고속도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 향상은 물론 물류비 절감과 관광객 유입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하이패스IC 진입부가 위치한 천



장수군은 24일 천천면 일원에서 추진 중인 장수 하이패스IC 연결도로 개설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사진=장수군>

천삼거리 구간은 현재 제6차 국도·국도26호선 확장사업이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핵심 구간으로, 장수군은 향후 교통량 증가와 교차로 혼잡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도 확장사업 반영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 하이패스IC 연결도로와 국도26호선 확장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된 사업으로, 하이패스 개통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혼잡과 안

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군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국가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빙기에는 작은 관리 소홀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를 추진해 주길 바라고, 군에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축산농가 사료구매 정책자금 지원

연 1.8% 저금리·최대 9억 용자

임실군은 사료가격 상승과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상반기 사료구매 정책자금 68억 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자금은 연 1.8% 저금리로 100% 용자 지원되며, 2년 거치 후 일시상환 조건으로 농가당 최대 6억~9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을 완료하고 사전 수요조사에 참여한 농가 및 법인으로, 한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사슴, 말, 산양(염소), 꿀벌 등 전 축종이 포함된다.

군은 사육두수와 기존 대출잔액, 지원 한도 등을 종합 검토해 4월 24일자

지 농가별 지원 금액을 확정·통보할 계획이다. 선정된 농가는 6월 17일까지 관내 농·축협을 통해 대출을 실행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실행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심민 군수는 “이번 정책자금 지원이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고 경영안정 기반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고품질 천마 종균 보급 나서

지역 내 천마 생산대상 시종보다 6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무주군이 오는 4월 말까지 지역 내 천마 농가를 대상으로 ‘천마 종균’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천마 종균은 시중 가격보다 60% 이상 저렴하게 제공돼 농가 경영비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군은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동안 선별 및 포장, 검수하는 과정을 거쳐

10만 병을 생산했으며, 무주농협 친환경 경영통사업단과 협력해 농가들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유진광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연구개발팀장은 “무주군은 임병 및 배양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전문 연구 인력이 상주하는 천마종균배양센터에서 고품질의 종균을 생산하고 있다”라며 “천마 농사의 시작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우량 종균 생산과 유통에 힘써 무주 천마의 명성을 지키고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

다. 천마 재배는 참나무 원목, 천마 종균, 자마, 토질, 기후 등 여러 조건이 맞아 야 가능하며, 농약이나 화학비료 없이 100% 친환경 방식으로 재배된다. 무주천마의 주산지는 안성면으로, 현재 4백여 농가에서 전국 천마 생산량의 6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뇌출혈, 뇌졸중, 치매 등 뇌 질환 계통의 질병에 효과적인 성분을 함유한 ‘웰빙 약용자뿔’로 주목을 받고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노래로 물드는 옥정호 벚꽃축제

제2회 봉어섬 벚꽃가요제 개최

임실군의 대표관광지 옥정호의 수려한 봄 경관을 배경으로 한 제2회 봉어섬 벚꽃가요제가 화려하게 펼쳐진다.

이번 가요제는 벚꽃이 만개한 옥정호 봉어섬에서 열리는 “2026 옥정호 벚꽃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대표프로그램으로 축제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옥정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봄의 정취와 함께 따뜻한 위로와 즐거움을 선사하고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서의 가치를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 21일 진행된 예선에는 총123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연을

펼쳤으며, 이 가운데 13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경연은 벚꽃축제 마지막날인 4월 12일 일요일 오후 3시, 옥정호 봉어섬 출렁다리 앞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본격적인 경연에 앞서 하모니카와 색소폰 연주 등 지역 예술인들의 사전공연이 펼쳐지며, 가수 강민주를 비롯해 이진, 진현, 임재현 등 인기가수들의 축하공연과 실력과 참가자들의 무대가 이어져 축제의 열기를 한층 고조시킬 전망이다.

심사에는 가수 김하진(태경)과 작곡가 김상철 등 전문 심사위원이 참여해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며, 대상 200만원을 비롯해 총상금 500만 원 규모의 시상이 이뤄진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건강음료 배달 안부 확인 서비스 시행

홀어르신 고립·고독사예방

무주군이 6개 읍면 32명의 홀로 거주하는 중장년 및 어르신 가정을 대상으로 고립·고독사 예방을 위한 건강음료 배달 안부 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HY 우아점과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 1회 우유나 야쿠르트, 주스 등의 건강 음료를 제공하며 건강 상태와 안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미개봉 음료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사회복지과에 내용을 신속히 전달하게 된다.

행정에서는 해당 가정에 복지상담, 서비스 및 유관기관 연계 등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한다.

무주군은 이와 관련해 지난 25일 HY(한국야쿠르트) 우아점(대표 김재용), 사회복지법인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규평)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무주군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은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과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군은 건강음료 배달 안부 확인 서비스 외에도 위생 및 환경 개선과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낙상 방지용품 지원 등 고독사 예방 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상반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소진 임박

전기화물차보조금 마감단계

임실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19억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상반기에는 전기자동차 91대(승용 67대, 화물 24대) 보급 사업을 추진 중이며, 기한 내 미실행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상반기 신청은 2월 23일부터 시작해 현재 접수가 진행 중이며, 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임실군에 주소를 둔 주민과 임실군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단체가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이루어지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

정된 후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다.

지원대상 차종 및 보조금 금액은 차종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또는 임실군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대리점 방문 후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기화물차는 사실상 마감 단계에 있으며, 전기승용차 역시 잔여 물량이 많지 않아 조기 마감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2026년 개별주택가격(안) 열람·의견제출

개별주택 8,039호 4월 6일까지

장수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 8,039호에 대해 오는 4월 6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는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개별지와 개별주택 간 지지특성 일치 여부 및 가격 균형 유지를 위한 상호 검토를 실시하고,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했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절차를 거쳐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장수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총무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안)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청 사격팀, 전국대회서 활약

추가는 선수 개인전 1위 수상

임실군청 사격팀이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대구국제사격장에서 열린 '제9회 대구광역시장애인 전국사격대회'에 참가해 개인 및 단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2026년 시즌의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번 대회에는 추가는, 이시윤, 백정현, 김예림 선수가 출전해 10m 공기권총과 25m 화약권총 등 2개 종목에 참가했다.

10m 공기권총 경기(3월 16일)에서는 추가는 선수가 개인전 1위, 이시윤 선수가 2위를 차지하며 같은 팀에서 나란히 1·2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개인전 성적을 합산해 산정하는 단체전



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팀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임실군청 사격팀은 이번 대회를 통해 개인과 단체에서 모두 경쟁력을 입증했

으며, 향후 2026년 아이치·나고야 선발전에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임실=한병열 기자



지비스타일, 남원시에 아동용 내의 500벌 기부

"아이들의 따뜻한 봄 응원"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25일 프리미엄 실내복 브랜드 '무나무'로 유명한 ㈜지비스타일(대표 이사 박용주)로부터 관내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아동용 내의 500벌(1,300만 원 상당)을 기탁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식은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기탁된 내의 500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해 아이들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비스타일 김동혁 물류혁신본부장은 "남원시의 미래인 아이들이 따뜻하게 잘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1984년 창업해 국내 내의 전문 업력 41년을 자랑하는 지비스타일은 26년 동안 전국 백화점에서 쌓은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현재는 프리미엄 아동 실내복 브랜드로서 명성을 얻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군산 서수면, 고령 어르신들께 장수기원 명아주 지팡이 전달

군산시 서수면 보듬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문현순, 민간위원장 이주희)는 25일 관내 고령 어르신 70명을 대상으로 '구구팔팔 장수기원 명아주 지팡이(청려장) 지원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려장 지원은 장수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청려장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뜻깊은 선물을 받아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며 "가볍고 튼튼해 외출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코튼클럽 김보선 대표, 고향 정읍시에 1천만원 기탁

'14년째' 변함없는 사랑 전달

속옷 전문기업 ㈜코튼클럽 김보선 대표가 지난 24일, 고향인 정읍시 북면의 발전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북면 신평리 동산마을 출신인 김보선 대표는 남다른 애郷심으로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14년 동안 매년 거액의 성금을 기탁하며 고향 사랑을 몸소 실천해 오고 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오는 4월 4일 개최 예정인 '제20회 북면 면민의 날 및 화합 한마당 축제'에서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면민 화합을 위한 소중환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김보선 대표는 "다가오는 면민의 날 축



제가 모든 면민이 하나 되어 즐겁고 행복하게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향 발전을 위해 노력

하나마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완주 고산농협, 조합원 자녀들에 장학금 전달

완주 고산농협(조합장 손병철)은 지난 24일 2층 대회의실에서 조합원 자녀 대학생 장학금 및 농촌 희망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조합원 자녀 대학생 19명에게 장학금 각 100만원씩 총 1,900만원과 농촌 희망 장학금 6명에게 각 50만원씩 총 300만원을 전달했다.

고산농협의 조합원 자녀 대학생 장학금은 조합원의 자녀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사회에 기여 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1996년부터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올해까지 901명에게 6억 394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지역 사회의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고산농협 손병철 조합장은 "미래를 이끌어갈 조합원 자녀들이 학업에 더욱 정진해 농촌과 지역 사회 발전에 큰 힘이 될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며 "고산농협은 조합원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

농업인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청년애 희망을, 노년애 행복을, 농업애 미래를

농지은행은 농지관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농지은행'을 검색하세요 > 검색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 농지매매, 임대를 통한 영농규모 확대 지원
- 고령은퇴, 이농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비축하여 임대

경영화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자연재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최장 10년간 임대 및 한해보장 등 경영 정상화 지원

청년후계농, 2030세대, 우계농업인 농지우선지원

- 청년후계농의 빠른 영농정착을 위해 우선 지원
- 생애 첫 농지구입자금 저리 지원, 5-10년 장기임대

농지연금사업

-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원
- 배우자 승계가능, 가입비 없고 재산세 감면 혜택

과원규모화사업

- 고령·은퇴농, 비농업인 등의 과원을 매입 또는 임차해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청년후계농(창업농, 2030세대) 등에게 매도, 임대

농지임대수탁사업

- 자력이 어려운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위탁받아 농업인에게 5년이상 장기임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은행

상담/문의 1577-7770

홈페이지 www.fbo.or.kr



재경은봉향우회 이영정 회장, 남원시에 성금 기탁

지난 24일, 재경은봉향우회 이영정 회장이 고향 남원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으로 고향사랑기부금 200만 원을 전달하며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탰다.

이번 기부는 이영정 회장의 남다른 고향 사랑이 빛낸 결실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23년 100만 원, 2025년 100만 원을 기부한 데 이어 올해도 200만 원을 쾌척하며 누적 기부액 총 400만 원을 기록하게 됐다.

특히 이번 기부로 이 회장은 남원시 고향사랑기부금 누적액 기준에 따라 '남원 사랑 명예의 전당'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기부

문화 확산의 귀감이 되었다. 이영정 회장은 전달식에서 "몸은 비록 타지에 있지만, 마음만은 늘 고향 남원과 함께하고 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남원의 미래를 이끌어갈 후배들과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남원시 관계자는 "매년 잊지 않고 고향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어주시는 이영정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탁해주신 기부금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김제 백구의용소방대, 봄맞이 환경정화 봉사활동

김제시 백구면 행정복지센터는 백구의용소방대(대장 김종수)가 25일, 완연한 봄을 맞아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도 26호선 일대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김종수 백구의용소방대장을 비롯한 대원들이 참여해, 도로변에 무단 투기된 생활 쓰레기와 겨울철 목은 먼지 등을 수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통행량이 많은 국도 26호선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정비가 이루어져 지역 경관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현장을 찾은 박화자 백구면장은 봉사 중인 대원들을 일일이 격려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부안 보안면지사협 배달승 위원, 위탁가정아동에 매월 백미 지원

부안군 보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배달승 위원이 관내 위탁가정아동 3가구에 매월 사랑의 쌀 1포씩을 지원키로 하고 25일 기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은 이장회의와 겸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나눔문화 확산 분위기에 기여했다.

또 위탁가정아동에 대한 백미 지원은 지난해 보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모금액으로 사업을 실시했었으나 올해에는 부안군농민회협 겸 보안면 지사협 배달승 위원이 직접 백미를 지원키로 했다.

배달승 위원은 "직접 생산한 백미로 위탁가정아동 세대에 친한경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아껴진 힘의 체 모금액을 다른 지역사회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은봉기 기자

〈一事一言〉



책임 없는 역사, 반복되는 선택을 만든다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과거청산② 우리 민족은 유난히 자식에 대한 사랑이 깊다. 부모 세대는 스스로를 희생해서라도 자식만큼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 마음은 숭고하고 아름답다. 그러나 그 사랑이 왜곡된 선택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동하는 순간, 우리는 불편한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일제강점기 일부 조선인들은 나라를 지키고 식민 권력에 협력했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개인의 안위뿐 아니라 가족과 자식의 생존, 더 나아가 번영을 이유로 자식만 잘 살 수 있다면 감수하겠다는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결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 그 선택은 한 시대의 정의를 무너뜨렸고, 그 대가는 공동체 전체가 치러야 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만약 그 선택의 결과가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고 자식과 손주, 그 후대까지 이어지는 책임으로 남는다면 과연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매국의 대가가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가문 전체가 감당해야 할 도덕적·사회적 책임으로 남는다면, 그 선택은 결코 가볍지 않았

을 것이다. 이 질문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다. 역사적 책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다.

끝나지 않은 역사... 책임은 어디에

물론 이를 이유로 연좌제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죄는 개인의 것이며 책임 역시 개인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은 법치의 기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책임, 즉 역사적·도덕적 책임의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이 지점에서 우리의 역사가 멈춰 있다는 데 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책임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는 해방 이후에도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며 그 영향력을 이어갔다.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한 자리에서, 잘못된 선택은 처벌받지 않았고 때로는 보상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최근 불거진 이완용 후손의 재산 반환 소송은 이러한 역사적 왜곡이 얼마나 현재진행형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조상의 죄가 자손의 죄가 아니

라는 원칙은 분명하다. 그러나 나라를 팔고 민족을 배신하는 대가로 축적된 재산을 되찾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는 단순한 법적 권리 행사라는 차원을 넘어, 역사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마저 결여된 태도이며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기억과 책임... 반복 막는 최소한의 기준

문제의 본질은 명확하다. 책임이 단절된 역사에서는 잘못된 선택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권리로 포장된다는 점이다. 과거에 대한 분명한 평가와 사회적 합의가 없을 때, 역사적 범죄는 세대를 넘어 다시 정당화되려 한다. 이완용 후손의 소송은 그 극단적인 사례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사 청산은 단순한 처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책임의 연속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누군가의 선택이 공동체에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분명히 기록하고, 그 의미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것. 그리고 그 잘못이 결코 영광이나 권리로 이어질 수 없다는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후대가 같은 선택을 반복하지 않도록 만드는 최소한의 장치다.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은 연좌제가 아니다. 기억과 책임이다. 잘못된 선택이 개인의 성공으로 미화되지 않고, 공동체를 배반한 대가는 역사 속에서 분명히 기록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일이다. 그것이 후대를 향한 가장 공정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결국 질문은 이것이다. 나의 선택이 나로 끝나는가, 아니면 역사가 남는가. 이 물음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매국과 같은 비극적 선택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책임 없는 역사는 언제든 같은 선택을 부른다. 그리고 그 대가는 언제나 공동체 전체가 치러게 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를 덮는 용기가 아니라, 끝까지 묻고 기록하는 집요함이다. 그것이야말로 국가의 품격을 지키는 마지막 선이다.

사설

문화콘텐츠를 육성해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문화콘텐츠 산업을 본격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게임·웹툰·음악·영화 등 전 분야에 걸쳐 380억 원을 투입하고,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과 200억 원 규모의 창업기업 지원 펀드 조성까지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산업 생태계 전반을 재편하겠다는 의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을 고민해 온 전북으로서는 반드시 성과로 이어가야 할 중대한 분기점이다.

사실 전북은 문화콘텐츠 기반이 전무했던 곳은 아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콘텐츠코리아랩과 콘텐츠기업지원센터, 글로벌게임센터, 웹툰캐프스, 음악창작소 등 필수 인프라를 차근차근 구축해 왔다. 그 결과 입주기업 지원, 신규 창업, 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 성과도 확인됐다. 이는 문화콘텐츠 산업이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적인 산업 자산'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기반을 어떻게 도약으로 연결하느냐다. 이번에 추진되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은 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세계 각국과 금융 지원, 기업 실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입지 선정과 운영 전략이 성과를 좌우할 것이다. 보여주지 않거나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모이고 성장하는 '살아있는 산업지구'로 만들어야 한다.

200억 원 규모의 문화콘텐츠 펀드 역시 마찬가지다. 지역 콘텐츠 기업들이 가장 크게 호소해 온 것이 투자 유치의 어려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펀드는 대비와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

다. 다만 단순한 자금 공급에 그치지 않고, 유망 기업 발굴과 성장 단계별 투자, 외부 자본과의 연계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운용이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에 머무는 기업'이 아니라 '지역에서 성장하는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장르별 맞춤형 지원 전략도 주목할 부분이다. 게임·웹툰·음악·영화 등 각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은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다. 특히 영화 분야에서 기획부터 촬영, 후반 제작까지 가능한 통합 제작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은, 지역 콘텐츠 산업의 질적 도약을 예고한다. 이러한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전북은 단순한 촬영지가 아니라 콘텐츠 생산 거점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성패는 결국 실행력에 달려 있다. 사업 간 중복과 비효율을 줄이고,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단기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 생태계를 키워나가겠다는 일관된 전략이 요구된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지역의 이야기를 자산으로 바꾸는 힘을 지닌 분야다. 전북이 가진 풍부한 역사와 서사, 문화, 인문 자산을 그 자체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의 원천이다. 이러한 자산을 기반으로 이번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전북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닌 K-콘텐츠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다. 전북의 미래가 '문화로 성장하는 지역'이라는 비전으로 현실화되기를 기대한다.

오늘의시

정든 세월에게 / 안도현

겨우내 살이 오른 딱정벌레 작은 알이
봄 아침 눈을 뜨고 나무 밑동 간질일 때
그리움 가지 끝마다 새잎 나며 보낸다
버들개지 실눈 뜨는 여울목 아지랑이
눈물겨운 물거울로 꿈결 속에 반짝일 때
이제야 견딜 수 없는 꽃망울이 터진다

시인 약력 : 1961년 경북 예천 출생. 원광대를 거쳐 단국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81년 대구매일신문 신춘문예에 '낙동강'이 당선되면서 데뷔했다. 1996년 시와 시학 젊은 시인상, 1998년 소월 시 문학상, 2000년 원광문학상, 2002년 노작문학상을 수상했다. 우석대 문창과 교수를 하면서 작가 활동을 병행했다. 2019년 단국대 천안캠퍼스로 이직했다. 2020년에는 전주를 떠나 고향 예천으로 돌아갔다.

문화재 열전



안국사 극락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 유적건조물, 불전
- 지정일 - 1974년 9월 27일
- 시대 - 조선시대
- 소재지- 무주군 적상면 산성로 1050 (과목리)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10월01일 화/ 등록번호 전북 가-00022(제14호)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종양지국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국 010-8640-6855
익산지국 010-8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국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전지국 010-5242-3684	정읍지국 010-29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
농업인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청년애 희망을, 노년애 행복을, 농업애 미래를

농지은행은 농지관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농지은행'을 검색하세요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 농지매매, 임대를 통한 영농규모 확대 지원
 - 고령은퇴, 이농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비축하여 임대
- 농지연금사업**
 - 만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원
 - 배우자 승계가능, 가입비 없고 재산세 감면 혜택
- 경영화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자연재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 및 환매보장 등 경영 정상화 지원
- 과원규모화사업**
 - 고령·은퇴농, 비농업인 등의 과원을 매입 또는 임차해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등에게 매도, 임대
- 농지임대수탁사업**
 - 자경이 어려운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위탁받아 농업인에게 5년이상 장기임대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농지우선지원
• 청년후계농의 빠른 영농정착을 위해 우선 지원
• 생애 첫 농지구입자금 저리 지원, 5~10년 장기임대

농림축산식품부 KRF 한국농어촌공사 fb 농지은행
상담/문의 1577-7770 홈페이지 www.fbo.or.kr



정읍시, 민생경제 회복·지역경제 활성화 살기 좋은 정읍 만들기 앞장

정읍시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생 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풍요로운 민생경제로 살기 좋은 정읍'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정읍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을 비롯해 샘고를 정다운 상권 활성화 사업, 소상공인 지원 정책, 금융 지원, 공공배달업 활성화 등 체감도 높은 민생경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편집자 주)

■ 정읍사랑상품권 1040억원 확대 발행... 지역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력 견인

정읍시는 경기 침체로 위축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비 70억원을 확보하고, 2026년 한 해 동안 총 1040억원 규모의 정읍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정읍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이끄는 대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시민들의 체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3월부터 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2%로 상향해 운영한다.

상품권은 평일 기준 매일 80억원 규모로 발행되며, 소비가 집중되는 명절(2월, 9월), 5월 가정의 달, 12월 연말에는 평일 대비 20억원을 증액한 100억원 규모로 공급해 지역 소비 활성화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구매 한도는 1인당 월 100만원이며, 보유 한도는 200만원이다. 상품권은 매일 1일 오전 8시에 판매되며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가맹점 등록 확대와 이용 편의성 개선을 위한 홍보와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정읍사랑상품권의 활용도를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샘고를 정다운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구도심 상권 제도약 기반 마련

정읍시는 샘고을시장과 중앙로·우암로·새암로 일대 구도심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정읍 샘고를 정다운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80억원이 투입되는 5개년 사업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밀집한 '샘고을 정다운 상권'을 중심으로 낙후된 구도심 상권의 환경을 개선하고 상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정읍시는 상권 환경 개선과 콘텐츠 발굴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샘고을시장 입구 정비와 점포 간판·매대 정비, 고객선 정비 등을 통한 샘고을시장 특화거리 조성,

정읍사랑상품권 1040억 발행
샘고를 정다운 상권 활성화 사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125억 확대

샘고을시장 간판 및 승강장 정비를 포함한 정다운 거리 조성, 샘고를 시장 상징물 시계탑 설치, 우암로 일대 노후 상권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상권 이용 환경을 개선하며 구도심 상권의 기반을 다져 왔다.

또한 '오샘보쌌' 상권 브랜드와 캐릭터 굿즈를 제작하고 정읍샘샌드와 같은 상권 시그니처 상품을 개발하는 등 상권의 정체성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판매 입점 지원과 SNS 홍보 채널 구축, 관광 투어 패키지 운영 등을 통해 상권의 판로 확대와 방문객 유입 기반도 마련했다.

■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카드수수료 지원... 맞춤형 경영 안정 정책 강화

정읍시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은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거두며 시민과 소상공인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정읍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4172명의 소상공인에게 약 20억 8600만원 규모의 안정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역 상권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했다.

또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4% 범위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하는 제도로, 2025년에는 2286명의 소상공인에게 약 4억 3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상반기 중 사업을 추진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 특례보증 125억원 확대... 저금리 금융 지원으로 경영 부담 완화

올해 정읍시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은 정읍시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도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는 정읍시와 금융기관이 각각 5억원, 총 10억원을 출연해 총 125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 기간은 최대 5년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더욱 줄이기 위해 대출이자도 지원된다. 시는 대출이자 가운데 연 1%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최대 3% 이내의 이자를 지원해 이자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특례보증 확대와 이자 지원은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상권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배달업 연계 소비 촉진...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정읍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판로

확대, 소비 촉진과 시민들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읍형 공공배달업 '위메프오'를 운영하며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정읍사랑상품권 결제 시 구매금액의 5% 페이백과 일반 결제금액의 1% 페이백을 제공하고 있으며, 배달비 할인쿠폰 행사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설·추석 명절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등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특별 할인쿠폰 행사를 진행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가맹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공공배달업의 중개수수료를 2% 수준으로 낮춰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였으며 광고비와 가입비는 물론 배달 연동 프로그램 설치까지 무료로 지원해 가맹점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시민들에게는 합리적인 소비 기회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오며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형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민생경제 회복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경제 활력 창출

정읍시는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 상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지역 상점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정읍=김정민 기자

순창군의회

군민이 공감하는 신뢰받는 의회

| 의정방침 |

- 소통하는 **열린 의정**
- 변화하는 **혁신 의정**
- 창의적인 **선진 의정**
- 발로 뛰는 **현장 의정**